

전시체제기 조선 염업의 공업화 과정과 일본 독점자본의 침투*

류창호**

〈차 례〉

1. 머리말
2. 1933년 ‘賣鹽事件’과 조선총독부의 염업 통제
3. 일본 독점자본의 조선 염업 진출과 工業鹽 생산
4. 천일염전에서의 ‘苦汁’ 생산과 마그네슘공업의 발전
5. 맺음말

[국문초록]

1930년 「염수이입관리령」 반포를 통해 조선총독부는 국내 소금 소비량의 90%를 차지하는 천일염업의 독점적 운영을 성취하였고, 또 이를 바탕으로 제4기 천일염전 확장을 통해 식염의 자급자족은 물론, 화학공업의 발흥에 대응하는 공업염 생산까지 성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NaCl 함유량 90% 이상을 요구하는 공업염 생산은 사실 海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동아시아의 자연적 환경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1930년대 후반부터는 기존에 시험 생산에 그치고 말았던 기계제염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명분을 걸고 일본 독점자본이 대거 조선 염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1937년 대일본염업주식회사를 시작으로 가네가후치[鐘淵]해수이용공업,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제염공업주식회사, 남산화학공업주식회사 등의 일본 민간기업이 조선총독부로부터 천일염전 축조를 승인받은 염전 면적은 무려 4,200정보에 달한다. 이것은 조선 전매국이 1907년부터 1940년에 걸쳐 완공한 관영염전 4,325정보에 맞먹는 면적이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곧바로 천일염전의 축조를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적극 후원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정책은 종래 민간기업의 천일염전 축조를 금지한 염 전매제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트리는 것이었으며, 아울러 민간소비를 극도로 억제하는 통제정책인 「염 전매령」과도 모순되는 정책이었다.

* 이 논문은 2020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인하대박물관 학예연구사

한편으로 소금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苦汁이 전시체제기 마그네슘공업의 발흥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 따라, 모든 천일염전에 고즙 처리 시설을 부설하고 그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고즙은 '천일염의 씨앗'으로 불릴 정도로 천일염의 생산력 증가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이기도 했다. 따라서 1940년대 이후 이러한 과도한 고즙 반출은 역으로 제염 생산력을 하락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주제어] 염 전매제, 기계제염, 공업염, 고즙, 마그네슘공업, 대일본염업주식회사

1. 머리말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일본 본토는 물론, 關東州, 만주국, 대만, 조선 등 일본의 세력권 하에 있는 식민지·조차지·점령지들까지 모두 전시체제 경제로 돌입하였다. 산업구조 면에서나 재정지출 면에서 군사 관련 부분이 급격히 팽창하고, 반대로 민간소비는 극도로 축소되는 경제체제로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일본 사회가 이미 전쟁의 열기 속으로 휩쓸려 들어간 시기는 그 보다 6년 전인 1931년 만주사변의 발발부터였다. 중국으로의 침략전쟁을 통해 일본의 재정은 팽창하였고, 군수 위주의 중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대외무역이 증가하면서 서구 국가들보다 일찍 공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¹⁾

1930년대 일본의 이러한 정치·경제적 변화는 식민지 조선 사회에 곧바로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염업에 있어서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전까지 조선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 소비염의 상당량을 외부로부터의 공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전시체제기에 돌입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화학공업의 원료염(공업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선 염업 체제의 변화와 생산력 증가는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다.

식민지기 조선 염업을 연구하면서 필자는 1930년대 이후의 변화 과정에서 평소 두 가지의 의문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는 조선총독부의 염 전매정책에 대한 의문이다. 1930년 「염수이입관리령」을 발표하면서 천일염에 대한 통제

1) 서정익, 『전시일본경제사』, 해안, 2008, 5쪽.

권을 강화해 나간 조선총독부는 1942년 「염 전매령」을 통해 모든 민간 염업의 생산염까지 포괄하는 조선 염업 전반의 통제책으로서의 염 전매제를 완성시키었다. 하지만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하는 전시체제기의 염 전매제는 이전 시기 민간기업의 천일염전 축조를 엄격히 금지한 조선총독부의 정책과는 완전히 상반된 조치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식민지 염업 정책자나 일부 제염 기술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출되고 있었다. 따라서 1930년대 후반부터 민간기업의 천일염전 축조를 잇달아 승인하는 조선총독부의 조치가 과연 소금 수요의 급속한 팽창에 따른 임시적인 방책이었는지, 아니면 염 전매제의 근본적인 정책을 완전히 변경한 것인지는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전시체제기의 제염 생산력 하락의 원인이다. 1930년대 말에 정점에 오르던 천일제염 생산량이 1940년대 이후 급속히 하락하는 원인을 두고, 기존의 연구 성과들은 이를 단순히 전쟁으로 인한 자재 부족과 인력난에 의한 생산력 하락으로만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식민지기간 동안 일제가 건설한 천일염전이 총 7천여 정보에 달하는데, 그 중 3분의 2가 1930년대 이후에 건설된 염전이다. 신설염전이 급속히 건설되는 상황에서 제염 생산량이 하락하는 이유가 단지 전쟁 상황이라는 하나의 이유로만 해결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과묵한 필자가 살펴보건대 1930년대 이후 이러한 조선 염업의 변화를 고찰한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 연구자의 성과물 속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일본인 연구자인 다나가 마사타카[田中正敬]의 두 편의 논문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조선총독부가 실행한 통제정책과 공업염 생산 체제로의 변화 과정을 분석한 논문이다.²⁾ 하지만 위의 연구는 주로 식민지 당국의 염업 정책과 통계를 분석한 논문이어서, 민·관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펼쳐진 생산체제의 변화나 갈등에는 그 시선이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1930년대 이후 조선 염업이 변화되는 모습, 그 중에서도 특히 관영염전이

2) 田中正敬, 「1930年代以後の朝鮮における塩需給と塩業政策」, 『姜徳相先生古稀・退職記念日朝關係史論集』, 2003; 「日本における工業用塩需要の擴大と朝鮮塩業」, 『人文科學年報』36, 専修大學 人文科學研究所, 2006.

아닌 민간기업에서 시도한 제염법의 변화들(기계제염의 시도, 苦汁工業의 발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제염업이 군수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임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다. 제염업이 군수산업과 연결된다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식된 1933년의 ‘賣鹽事件’이 좋은 예시가 될 것 같다.

2. 1933년 ‘賣鹽事件’과 조선총독부의 염업 통제

1) ‘매염사건’의 전말

1933년 3월 6일, 『오사카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일본의 여러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독가스 제조용의 소금을 중국에 팔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을 특종으로 쏟아내었다. 수만 톤의 소금을 중국 군벌에게 밀매하려고 한 다나가 쓰네사부로[田中常三郎, 43세]가 5일 오후 도쿄 헌병대에 검거된 데에 이어, 6일 새벽 대만에서 모지[門司]항으로 입항하려던 본 사건의 운반책 후쿠시마 히데이치로[福島英一郎, 23세]까지 오사카 헌병대에 의해 선상에서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 대만 등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염 전매제가 실시되고 있었고, 비록 염 전매가 실시되지 않고 있던 관동주, 조선에서도 철저한 세관 검사와 단속이 취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5천여 톤에 달하는 소금을 상선에 신고 여순·대련과 대만, 상해를 누비며 밀매를 벌이려고 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사건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위의 사건은 분명 기존의 소금 밀매 사건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었다. 앞의 신문 표제에서도 보이듯이 밀매의 대상인 소금을 단순한 식염이 아니라 ‘독가스 제조용’이라는 섬뜩한 수식어를 붙여 공포의 대상으로 특정화시켰으며, 또한 밀매 행위 역시 단순히 사익을 추구한 개인의 이타적 행위가 아니라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다. 위의 사건을 당시 헌병대와 언론이 ‘賣鹽事件’ 또는 ‘독가스 원료

밀수사건', '大賣國事件' 등으로 호칭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나카 쓰네사부로, 후쿠시마 히데이치로의 체포와 함께 후쿠시마 후쿠노스케[福島福之助, 65세], 후쿠시마 교조[福島恭三, 42세], 오츠카 히사조[大塚久三, 45세] 등 공범들이 속속 검거되고, 또 이들의 가택수색을 통해 관련 문서와 계약서, 영수증 등 수백 점에 달하는 증거품이 발견되면서 사건의 대체적인 윤곽이 파악되었다. 3월 9일, 오사카 헌병대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 '매염사건'을 개략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³⁾

오사카 헌병대가 파악한 '매염사건'의 주모자는 교토에 거주하는 오츠카 히사조였다. 그는 과거에도 무기 밀수출에 관여하여 교토 헌병대에 검거된 이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이번에는 발각될 위험이 큰 무기 대신에 독가스 제조가 가능한 소금을 중국 군벌 장쉐량[張學良]에게 판매하여 거액을 챙길 요령으로 오사카로 와서 오사카G·T·원상회 출자자인 효고현의 후쿠시마 교조와 공모하였다. 그리고 후쿠시마는 소금 매입을 추진할 인물로 자신과 지인 사이인 대련의 藥種商 다나카 쓰네사부로를 끌어들었다. 문제는 자본이 풍부한 후원자를 얻는 일이었는데, 오츠카와 후쿠시마는 大日本鹽業과 阪神電鐵의 사장을 지낸 시마 토쿠조[島徳藏]를 포섭하기로 하고 시마의 추종자인 오사카의 약종상 후쿠시마 후쿠노스케를 끌어들여서 1932년 12월 말에 시마와 회견하고 결국 그로부터 1차 매입비 8만 엔을 조달받는 데까지 성공한다.

매입 자금을 확보한 후 이들은 구체적인 밀매 작전을 짜고 각자의 임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주모자 격인 오츠카는 곧바로 상해로 가서 장쉐량의 측근과 교섭하여 제1회분 거래로 10만 톤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나카는 시마로부터 받은 8만 엔을 조선은행 오사카지점에서 환전하여 대련에 소재한 자신의 상점 구좌로 이체시키고, 관동주를 중심으로 소금 매입에 나섰다. 여순의 야하라[矢原]상회에서 1만 톤의 매입신청을 하였으나 간신히 1,500톤을

3) 이하 '매염사건'의 전말은 『大阪毎日新聞』의 1933년 3월 6일자 기사(『島氏から出た資金は十数万円: 学良軍への岩塩売込みの怪事件進展』), 『大阪時事新報』의 7일자 기사(『毒瓦斯原料密輸事件新展開』), 그리고 『神戸新聞』의 9일자 기사(『判明した塩売込み事件全貌』 및 『今明日中に一愈々島氏を召喚取調べ』) 등에 따른다.

매입하였고, 대련에서는 미쓰이물산으로부터 2,600톤을 매입하였다.

매입한 소금의 운반은 후쿠시마 히데이치로(후쿠노스케의 장남)가 맡았다. 그는 2만 엔을 가지고 고베로 가서 하마네[浜根]상점 소유의 야스쿠니마루(5,100톤)를 2개월 간 차입하였다. 그리고 1월 15일 고베항을 출발하여 여순과 대련 두 항구에서 매입된 소금 4,100톤을 설탕 포장재로 위장해 신고서 오츠키가 있는 상해로 출항하였다. 오츠키는 사전에 중국 측과 교섭하여 군함 3척을 출동시켜 상해 인근에서 자신들의 배를 경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중국 군함은 출동되지 않았다. 당황한 히데이치로는 연료와 음료를 보충하러 대만과 샤먼[廈門]에 잠시 기항한 것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십여 일을 해상에서 보내었는데, 결국 카오승항에서 선원들에 의해 비밀이 누설되고 말았다. 위협을 직감한 오츠키와 히데이치로는 용선을 다시 대련으로 보내어 하역하게 하고, 자신들은 일본으로 급히 귀국하려 했으나 헌병대의 추적으로 체포되고 말았다.

이상이 오사카 헌병대가 발표한 소위 ‘매염사건’의 전말이다. 하지만 위의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선 매입한 소금이 ‘독가스 제조용’ 원료라는 헌병대의 주장이다. 사실 제염업은 인간 생존의 필수품인 식염 외에도 수산물 가공, 장유공업 등에 쓰이는 식품공업용 소금, 사료·피혁 제조 등에 쓰이는 일반공업용 소금, 그리고 각종 소다류(유리·비누·직물) 및 염료·제약·세척제 등으로 쓰이는 화학공업용 소금 등 그 수요처가 무궁무진하다. 각종 화약류와 독가스 등 무기 제조에도 소금이 기본 원료로서 이용된다.⁴⁾ 그러나 이것은 소금이 지니고 있는 화학적 성분을 이용한 가공품이지, 소금 그 자체가 특정 제품으로 치환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즉, ‘독가스 제조용’ 소금은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물론 ‘소다용’ 소금이나 ‘공업용’ 소금과 같이 특정 제품의 원료임을 강조하는 용어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대량생산되는 화학제품의 원료로서

4) 식염을 전기분해하여 염소를 만들고, 이 염소에 농황산, 이산화망간 등을 첨가하여 가열하면 클로르(Chlor) 가스가 만들어진다. 이 클로르 가스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포스겐, 클로르피크린, 미클로르메틸, 클로르포름, 머스터드 황, 페을카르빌라민, 네펠클로로아신, 클로르황산 등이 강렬하고 잔혹할 만한 독가스가 된다(『大阪時事新報』, 1933. 3. 6. 「塩から毒ガスへ: その製法はこうだ」).

“값이 싸고 순도(염화나트륨 함유율)가 높은 소금”을 지칭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다나카 쓰네사부로에게 소금 2,600톤을 판매한 미쓰이물산 관계자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소금은 專賣이어서 매우 高價이지만, 關東州에서는 값싼 것이다. 海關 접수 이후로는 大連稅關이 소금 수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브로커들이 활약하고 있다. 이번 계약도 아마 소금을 매입해서 어딘가의 중국 内地로 몰래 수출하려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독가스의 원료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전적으로 善意로서 보통의 상거래로 행했던 것이고, 戰時禁制品이란 것은 알지 못했다. 법률적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쓰이(三井)가 결코 매국적 행위의 앞잡이가 되어 움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⁵⁾

이처럼 판매자인 미쓰이물산은 소금이 ‘戰時禁制品’에 해당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염 전매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관동주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밀매사건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던 것이다. 따라서 1933년의 ‘매염사건’은 일본 헌병대가 특정세력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목적 하에 일으킨 ‘공안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사건의 전말이 발표된 이후, 여론이 5인의 주동자에 대한 비판보다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한 시마 토쿠조에게 집중적인 화살을 들린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당시 일본 우익을 대표하는 정당인 國粹大衆黨은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이틀밖에 안 된 3월 8일에 시마氏 응징 연설회를 개최하여 “시마 토쿠조는 전 재산을 국방비로 헌납하고, 목을 쳐서 죄를 천하에 사죄할 것”을 결의하였다.⁶⁾ 대일본염업, 일본회발유, 한신전기 철도, 일노어업 등의 사장을 역임하며 오사카를 대표하는 실업계의 거두로 추앙받던 시마는 결국 1933년 ‘매염사건’과 이듬해 일어난 애국저금은행 파산 사건에까지 연루되면서 몰락하고 말았다.⁷⁾

5) 『大阪毎日新聞』1933. 3. 8. 『塩売込み問題に三井物産が登場：大連支店で売渡したのが毒ガス原料と判り狼狽』.

6) 『神戸新聞』1933. 3. 9. 『判明した塩売込み事件全貌』.

7) 시마 토쿠조는 1937년 애국저금은행사건으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다.

아직까지 1933년 ‘매염사건’의 진실은 정확히 판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매염사건’을 계기로 관동주와 조선에서의 염 전매제 시행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되어졌다. 만주국 창건 이후에도 자유판매제를 유지하고 있는 관동주와 관영천일염전 체제이면서도 전면적인 염 전매제를 계속 유보하고 있던 조선에서 위의 사건을 계기로 통제경제 정착의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된 것이다.

2) ‘염 전매제’ 시행 논쟁과 조선총독부의 염업 통제 정책

조선총독부가 곧 전면적인 ‘염 전매제’를 실시할 것이라는 소문은 이미 1920년대 중반부터 퍼지기 시작했다. 1923년 8월, 서해안에 몰아닥친 대폭우로 신설 및 기설 염전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또 같은 해 9월에 일어난 일본 간토지방에서의 대지진으로 관영염전의 축조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염 전매제 시행설’은 대중들의 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촉발시켰음은 물론, 중국 鹽場과의 독점 계약을 노리는 염업회사들의 대형 사기사건까지 일어나게 만들었다.⁸⁾ 하지만 이때까지의 조선총독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조선에서의 염 전매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에 변함이 없었다. 조선염의 생산 부족으로 중국염의 수입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현실에서 염 전매제 시행은 요원한 일이며,⁹⁾ 또 일본에서의 염 전매제 시행(1905년) 이후의 상황을 보더라도 재정 정책으로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¹⁰⁾ 그러나 1930년 수입입염에 대한 관세 특례 폐지를 앞두고,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입장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¹¹⁾ 종래 수입입염에

8) 『조선일보』 1926. 1. 23. 『高麗鹽業株式會社를 종로서에서 조사』 및 1926. 7. 6. 『本町署에서 일망 타진된 대구모의 사기단』

9) 『매일신보』 1924. 3. 4. 『鹽專賣는 前途遙遠, 염전 확장은 전매와 무관계』

10) 『중외일보』 1927. 6. 2. 『朝鮮의 鹽專賣 實施不可能?』

11) 1910년대까지는 모든 수입입염에 대해 7.5%의 수입관세가 부과되었지만, 1920년 8월 관세제도 개편에 따라 철폐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관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 100근 당 10전의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1930년까지 적용하였다(田中正敬, 『植民地期朝鮮의 鹽需給と民間鹽業 - 1930年代までを中心に』, 『朝鮮史研究会論文集』 35, 1997, 156쪽).

부과되던 100근당 10전의 관세 특례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염 수급과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염 생산을 늘리고, 수이입염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는 염 전매제의 실시밖에 방법이 없었다.¹²⁾

결국 조선총독부는 1930년 3월, 관세 특례 폐지를 한 달 앞두고 긴급히 「염의 수입 또는 이입에 관한 건」(이하 ‘염수이입관리령’으로 약칭)을 제령 제1호로 공포하였다. 제1조에 실린 “염은 정부 또는 정부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수입 또는 이입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말해주듯이, 모든 수이입염을 조선총독부의 명령에 의해 수이입하고, 또 수이입된 소금은 조선총독부가 수매하여 지정된 판매인에게 불하한다는 것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전면적인 염 전매제의 시행은 아니지만 조선에서 소비되는 전체 염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이입염에 대해서 조선총독부가 통제권을 갖겠다는 선포였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법령을 시행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특례를 폐지한 채 자연의 성행에 방임하게 되면 조선 내 염가는 생산 과잉으로 신음하는 관동주 등의 수입염의 쇠도에 의한 영향을 받아 세액에 상당한 低落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자유수입의 결과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격심하게 하여 염가가 항상 등락을 일으켜 생활의 필수품으로 하여금 투기의 목적물로 되게 하고, 나아가서 수급의 원활치 못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입염의 압박에 의해 이미 苦境에 처해 있는 조선 내 염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¹³⁾

이처럼 ‘염수이입관리령’ 시행의 표면적인 이유는 염의 자유판매로 인한 세입 감소와 시장 혼란의 방지이지만, 무엇보다 在來煎熬業者나 再製鹽業者 등 민간염업의 붕괴 위험을 가장 우려하여 시행하는 조치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수입염의 압박에 의해 이미 苦境에 처해있는 재래 전오업자가 수입관세 철폐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폐멸로 돌아가며, 다수의 종업자는 실업의

12) 『중의일보』 1929. 10. 24. 「來年度 豫算에 計上하야 鹽專賣 實施키로 決定」

13) 松本誠, 「鹽輸入管理施行に就て」, 『朝鮮』 180, 朝鮮總督府, 1930. 5.

비경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1909년 통감부가 천일제염의 관영 실시의 배경으로 펼친 논리와 차이가 없다. 즉, 당시 일제가 조선염업의 개혁을 부르짖으며 조선 재래의 제염법(전통 煮鹽 방식)을 “극히 유치한 제염법이고, 어차피 자연 도태될 업종”으로 규정하여 20여 년 동안 아무런 지원책을 내 놓지 않은 채 방임하였던 과거를 생각할 때, 위의 논리는 기만적인 언술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오히려 ‘염수이입관리령’ 공포의 숨은 배경으로는 수이입염의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얻게 되는 실제적인 염 전매제의 효과, 그리고 ‘제4기 천일염전 확장 계획’을 통해 염 수급의 자급화 목표를 실행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실제로 조선총독부는 ‘염수이입관리령’을 통해 전 조선에서 유통되는 전체 소금의 90%에 달하는 천일제염(관염 및 수이입염)의 생산·유통·판매를 독점하는 위치로 올라섰다.

사실 ‘염수이입관리령’의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쪽은 재조선 화교 鹽商들이었다. 기존에 조선에서 수이입염을 전문으로 취급한 곳은 인천, 군산, 진남포, 목포 등에 소재한 華商의 상점들로서, 1930년까지 총 16~18개의 상점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 화교 염상들은 주로 산둥 등지에서 오는 정크선(戎克船)을 대리하여 위탁 판매를 하거나, 해당 상점이 직접 선박을 구입하여 직접 중국을 왕래하며 소금을 운송, 판매하는 방식을 취했다.¹⁵⁾ 그러나 1930년 ‘염수이입관리령’의 시행으로 화교 염상들은 그 존재 기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들의 다수가 수입상 또는 판매상으로 지정받지 못했을 뿐더러, 겨우 지정을 받더라도 전매국에 의해 수입량을 제한받거나 낮은 염가를 요구받았다. 결국 기존과 달라진 판매 방식 등에 적응하지 못한 채, 이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으며 수이입염 사업에서 손을 떼어야만 하였다.

한편 ‘염수이입관리령’을 통해 조선에서의 실질적인 염 전매제를 보장받은 조선총독부는 1931년부터 5개년에 걸쳐 천일염전 2,200정보를 축조함으로써

14) 류창호, 「한국 근대염업의 네트워크와 그 특성」, 인하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184~188쪽.

15) 김희신, 「제조업 화교 염상과 조선총독부의 외업 관리」, 『중국근현대사연구』 77, 중국근현대사학회, 2018, 97쪽.

써, 식염의 완전한 자급자족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소위 專賣局의 ‘제4기 천일염전 확장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전매국의 제4기 계획은 이전과 달리 신설염전 축조 외에도 기설염전의 결정지 개량사업이나 염전 空地를 이용한 소규모 증설 계획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졌다. 외형적인 확장 못지않게 정보당 생산력을 최대한 끌어 올리려는 효율적인 증산 방안 마련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계획에 의해 평안남도 귀성염전 1,000정보와 경기도의 소래염전, 송산염전을 각각 600정보씩 증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¹⁶⁾ 소요 예산은 총 4,575,412엔으로 예측되었다.¹⁷⁾

그러나 위와 같이 1932년에 착공을 목표로 한 제4기 계획은 곧바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소위 ‘쇼와공황’이라는 재정 긴축의 충격을 받아 일본으로부터 예산의 인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¹⁸⁾ 따라서 염전 건설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시기는 1933년부터였고, 이때의 계획도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다. 신설염전 축조 및 기설염전 개량공사는 1933년부터 5개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전과 같지만 총사업비 483만 엔(신설염전 축조비 4,185,000엔, 결정지 개량 540,000엔, 기설염전 내부 정리 105,000엔)을 투자하여 2년 안에 대부분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아울러 귀성염전 1,000정보는 종전과 변함이 없지만, 소래염전과 송산염전은 각각 740정보와 460정보로 그 비율이 달라졌다.¹⁹⁾ 이러한 계획 변경마저도 예산 감축으로 인해 그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우선 1차 계획(1933~1936년)으로 귀성, 남시, 소래에 1,156정보를 건설하고, 2차 계획(1935~1940년)으로 귀성과 소래에 1,072정보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었다.²⁰⁾ 송산염전의 축조계획은 폐기된 대신에 남시 제2구 염전이 축조된 것이다.

16) 田中正敬에 따르면 원래 총독부는 1929년에 3,000정보의 천일염전 축조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는 제3기 공사에서 남겨진 귀성, 남시염전과 소래염전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 이 계획은 2,200정보로 축소되는데, 아마도 예산 삭감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田中正敬, 『1930年以後の朝鮮における塩需給と塩業政策』, 『姜徳相先生古希・退職記念 日朝關係史論集』, 新幹社, 2003, 306~307쪽)

17) 石川武吉, 『朝鮮鹽業史料 總說篇: 朝鮮の天日製塩に関する資料』(CTA0002790), 1971, 75~77쪽.

18) 朝鮮總督府 專賣局, 『朝鮮專賣史』 제3권, 1936, 306쪽.

19) 『朝鮮鹽增産計畫綱要』, 『鹽田築造ノ件』(CJA0014149), 1933.

20) 朝鮮總督府 專賣局, 『鹽務關係事務打合會關係書類』, 1940年 2月 참조.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야기를 돌리어 조선총독부가 1925년 이후 오랫동안 중단된 신설염전 축조를 실로 8년 만에 재개한 진짜 이유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제4기 계획은 통감부시대에 관영천일염전 축조를 통해 수입업을 방지하고 식민지 경영의 재원을 확보하려던 근본 목표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일본 본토와 조선, 대만, 관동주 등 식민지·조차지·점령지를 포괄하는 일제의 영역권 내(소위 ‘일본 블록’)에서 차지하는 조선염업의 지위가 어느 정도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920년대까지 대만, 관동주, 청도 등 소위 ‘外地鹽業’의 소비지로서 주로 존재한 조선염업을 생산지로 탈바꿈시켜 일본의 소금 부족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새로운 임무를 부여한 것이었다. 이는 ‘염수이입관리령’ 발포 1년 전인 1929년에 조선총독부가 세운 ‘염증산계획’의 목적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關東州는 租借地로 隣接 支那의 政情은 變轉하기 倅이 없어 何時라도 戰亂이나 其他 事變이 突發할지 짐작할 수조차 없다. 또한 製鹽에 從事하는 鹽夫들도 모두 支那人이어서 그 또한 何時 事變을 惹起할 우려가 있다. 이런 등의 事情으로 生産의 激減을 초래하고 혹은 輸送의 危險을 받는 등의 우려스러움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만일 朝鮮이 自作自給의 영역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朝鮮에서의 鹽의 供給에 何等 우려할 만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內地에서 供給不足을 告하는 경우에도 이를 급히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²¹⁾

1933년 당시 일본은 연간 소금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자급율이 45%에 지나지 않아 매년 12억 5천만 근의 염을 수이입에 의존해야 했다. 조선 역시 자급율은 48%에 불과하여 매년 2억 8천만 근을 수이입해야 했다. 반면에 대만과 관동주는 자체 소비를 하고도 매년 각각 1억 8천만 근, 3억 9천만 근의 잉여염이 발생하여 이를 일본과 조선으로 이출시키고 있었다.²²⁾ 따라서 이

21) 『朝鮮ノ塩政ニ關スル意見』, 『齋藤實關係文書』(日本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所藏 謄寫版), 資料番號 88-3-(6)-689, 1929年.

22) 『朝鮮鹽增産計畫ノ諸要點』, 『鹽田築造ノ件』(CJA0014149), 1933.

두 곳은 일제의 외지염업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소금 산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자료에서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관동주는 대만이나 조선과 달리 일제의 영역권 안에서 租借地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전쟁이나 사변 등이 발생할 시에 급변할 수 있는 정치적 변화에 대비해야 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열린 ‘워싱턴회의’와 중·일 간에 체결된 ‘산둥현안에 관한 조약’의 결과로 1922년에 조차지 靑島를 중국에 반환해야했던 과거를 상기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 조약들로 말미암아 청도에 건설된 3천여 정보의 염전을 모두 중국에게 반환해야 했다.²³⁾ 따라서 전매국은 중국보다 훨씬 정치적 안정성을 갖춘 조선에 신설 염전을 조성하는 쪽이 일제 영역권 안에서 볼 때에는 더 큰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조선총독부의 ‘염증산계획’은 1931년과 1934년 두 차례 열린 ‘內外地鹽務奏任官會議’, 그리고 1936년 이후 매년 열린 ‘內外地鹽務關係官會議’를 통해서 차츰 대외적인 공인을 받게 되었고, 이는 향후 일제 영역권 내에서 조선 염업의 위치를 확정짓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²⁴⁾ 위의 두 회의는 당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염 수요, 특히 공업염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는 외지로부터의 염 증산 체제 구축, 그리고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로부터 수입되는 외국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염 품질 개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내외지염무주임관회의’는 일본 拓務省 주최 하에,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관동청, 대장성, 상공성이 참여하였고, ‘내외지염무관계관회의’는 이보다 참여기관의 폭이 더 넓어져 일본 전매국 주최 하에 대장성, 척무성, 외무성,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관동주청, 만주국, 그리고 육군성 등이 참여하였다. 특기할 만 한 점은 이 두 회의에서 조선총독부가 과거 염 부족 지역으로서 관동주, 대만 등에서 오는 수이입염에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것과 달리 당당히 수이입염 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또 조

23) 渡辺惇, 『外地塩業と日本塩業』, 『日本塩業史大系』近代(稿), 日本専売公社, 1982, 609~610쪽.

24) ‘내외지염무주임관회의’와 ‘내외지염무관계관회의’에 대해서는 田中正敬의 『日本における工業用塩需要の擴大と朝鮮塩業』(『人文科學年報』36, 専修大學 人文科學研究所, 2006)을 참조.

선에서의 염 자급자족체제의 구축을 주된 목표로 내걸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회의 결과 조선총독부에게 부여된 사명은 “당분간 일반용염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증산을 도모할 것과 공업염 생산의 조사·연구를 진행할 것”이었다. 이 두 회의를 통해 조선총독부의 염 생산 자급자족체제 구축이라는 목표가 공인되었지만, 공업염 생산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함께 떠안겨진 것이다.

3. 일본 독점자본의 조선 염업 진출과 ‘工業鹽’ 생산

1) 소다공업의 발흥과 ‘공업염’ 수요의 증가

서두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1933년 제4기 염전공사 이후의 관영천일염업은 실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였다. 1925년까지 건설된 천일염전 면적의 두 배에 가까운 염전이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불과 12년 만에 만들어졌으며, 그 생산량은 6배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염 수급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급자족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상당량을 수입염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서둘러 제3차 증산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1938년부터 1940년까지 2,500정보의 염전을 신설하여 1945년까지 53만여 톤을 생산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일전쟁의 발발로 전시체제 하의 통제경제가 실시된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였다.²⁵⁾

이와 같이 1930년대 후반 이후 염 수요가 크게 증가된 데에는 일본의 소다공업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 1930년대 세계공황의 영향으로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수입 소다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자, 소다회·가성소다·표백분 등을 생산하는 일본의 화학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화학제품의 원료로서 대량 소비되는 것이 바로 천일염이었던 것이다.

25) 田中正敬, 『1930年代以後の朝鮮における塩需給と塩業政策』, 『姜徳相先生古稀・退職記念日朝關係史論集』, 2003, 311쪽.

1937년 전매국은 제염업과 화학공업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대에 있어서 鹽은 그 식량용으로 하여 생활의 필수품이란 것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近代重要 化學工業用 原料로 하고, 장차 또 하루아침 유사시 軍需用品 原料이기도 하여, 거국적으로 비상시를 배경으로 일약 시대의 寵兒로 하여 세상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래 조선에서는 염을 원료로 하는 중요 화학공업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최근 자원의 개발과 함께 四圍의 정세는 조선에서도 曹達 관계공업 등의 급속한 발흥·진출을 촉진하여, 昭和 10년도(1935) 이후 興南의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를 시작으로 하여, 그 방계의 諸회사의 원료용 염으로서 흥해 및 지중해 연안 등으로부터 다량의 수입을 하였고, 12년도(1937)에도 계속하여 年額 3만 톤 내외를 수입하려는 계획이 있다. 기타 明礬石, 마그네사이트(magnesite), 硃砂 등을 원료로 하는 諸工業 및 석탄의 액화, 漁油의 精製, 人絹, 人纖, 染色, 製紙 등의 諸工業, 石鹼[비누]제조 등의 중요 화학공업의 발흥·발전은 동시에 염의 수요의 현저한 약진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⁶⁾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에서 화학공업의 원료염(공업염) 수요가 발생한 것은 1930년대 후반 조선질소비료(주)에서 소다공장을 설립한 이후이다.²⁷⁾ 조선질소비료 외에도 1943년에 協同油脂, 1944년에 朝日輕金屬이 각각 연산 9천 톤 및 2만 톤에 달하는 電解法 소다공장을 준공하여 공업염의 수요는 더욱 늘어났다.²⁸⁾ 하지만 다나가 마사다카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에서의 공업염의 수요는 전체 소비량의 8%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1942년 식염 소비량이 44만 8천 톤인 것에 비해 공업염의 소비량은 4만 톤에 불과하였

26) 石橋雅威 編, 『朝鮮の鹽業』(朝鮮總督府 專賣局, 1937), 友邦協會, 1983년 覆刻本, 56~57쪽.

27) 실제로 조선질소비료(주)에서 처음으로 가정소다와 표백분을 생산하기 시작한 시기는 1935년이 아니라 1933년이다. 이후 1936년에 電解法 소다공장이, 1938년에는 안모니아법 소다공장이 설립됨으로써 본격적인 가동이 이루어졌다. 조선질소비료(주)에 대해서는 渡辺徳二編, 『現代日本産業發達史 13 化學工業(上)』, 現代日本産業發達史研究會, 1968; 槽谷憲一, 『戰時經濟と朝鮮における日室財閥の展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2, 1975; 姜在彥編, 『朝鮮における日室コンツェルン』, 不二出版, 1985; 大塩武, 『日室コンツェルンの研究』, 日本經濟評論社, 1989; 손정목, 『일제하 화학공업 도시 흥남에 관한 연구』(상)(하), 『한국학보』 제16권 2~3호, 일지사, 1990 등이 참조된다.

28) 田中正敬, 앞의 논문, 312쪽.

고, 이 역시 유럽이나 중동·아프리카에서 수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²⁹⁾

이처럼 공업염을 멀리 유럽 등지에서 들여오는 외국염에 의지했던 이유는 소다공업에서의 원료염이 높은 NaCl 함유량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1920년대 아사이글라스[旭硝子]의 조사에 의하면 관동주염의 NaCl 함유량은 85.28%에 불과한데 비해, 스페인염의 NaCl 함유량은 94.21%였다. 아울러 소다회를 제조하는 때에는 산화마그네슘[苦土]의 혼입이 생산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데, 스페인염은 정제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산화마그네슘의 함유량이 낮았다. 이로 인해 운반비의 면에서 보면 스페인염이 훨씬 비싸지만(기타 큐슈항 도착도로 톤당 관동주염 16.934엔, 스페인염 19.135엔), 정제 처리 과정을 거친 후의 톤당 가격은 스페인염이 오히려 낮았다(관동주염 20.394엔, 스페인염 19.855엔)³⁰⁾ 미국이나 아프리카의 염들도 90% 이상의 NaCl 함유량을 지녔지만, 이러한 요건을 갖춘 동아시아의 근해염은 한 곳도 없었다. 따라서 공업염은 관동주와 청도, 대만 등 일제의 영역권에서 수입되는 근해염보다는 스페인·이집트·소말릴란드·에리트리아 등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등지로부터 수입되는 원해염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연합국이 일본의 해상 무역로를 봉쇄함에 따라 1942년부터는 유럽 등지에서 가져오는 원해염의 수입 자체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일본의 화학공업계는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었다. 이제 유일하게 공업염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은 관동주, 대만, 화북 등 외지의 근해염 뿐이었다. 이들 일제 영역권 내에서 원해염 못지 않은 고품질의 공업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외지염업의 새로운 사명으로 부여되었고, 이는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내외지염무주임관회의’와 ‘내외지염무관계관회의’의 합의 사항을 통해 조선에서의 소비염의 자급자족체제 구축과 향후 일본으로의 반출을 위한 공업염 생산 도모가 조선총독부의 임무로 부여되었지만, 어

29) 田中正敬, 앞의 논문, 312~313쪽.

30) 兒玉州平, 『滿州塩業株式會社の設立意義: 過當競争下日本ソーダ製造業との関連に注目して』, 『國民經濟雜誌』 210(6), 神戸大学經濟經營学会, 2014, 3쪽.

렵게 시작된 제4기 염전 확장 공사마저도 난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급작스런 공업염 증산은 조선총독부로서도 당혹스런 일이었다. 다행히 서해안에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천일염전 保留地가 상당한 면적으로 남아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개발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것은 관영천일염전체제 하에서 일제의 영역권 중 유일하게 ‘製造專賣制’를 시행하고 있던 조선총독부의 염업정책을 스스로 무너트리는 것이어서 쉽사리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실례로 1931년 4월, 전매국이 광량만염전 인근 보류지의 개발권을 식산은행의 후원을 받는 조선염업철도주식회사에게 넘기려 하다가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관영 개발로 물러선 일이 있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천혜의 보고라는 조선의 각종 이권이 하나둘씩 대재벌에 농단되고 있고, 최근에는 가장 유망한 염전 또한 유력한 資本閥의 투자장이 되려고 한다”며 은행이 특정 기업에게 저리 자금을 융통해 주고, 또 주식마저 공모하지 않은 채 발기인끼리만 나누어 갖는 행태들을 강력히 비난하였다.³¹⁾

하지만 중일전쟁의 발발로 본격적인 전시체제기에 돌입한 이후, 결국 조선총독부는 민간자본의 천일염염업 진출을 금지한 원칙을 스스로 어겨가며 일본의 독점자본과 손을 잡고 만다. 공업염 생산이 조선의 전매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다음의 무네스에[棟居] 전매국장의 발언을 통해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고민을 엿볼 수가 있다.

조선에서의 공업염은 현재 年額 3만 톤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대체로 12만 톤 정도의 소요를 예측하므로, 당장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당국으로서는 이미 말했던 바처럼 식량염의 자급자족을 급무로 한 계획을 실행 중에 있어서,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한 年月이 필요하므로, 차제에 공업용 원료염의 생산염전 축조를 당국의 사업으로 하는 것은 예산상의

31) 『동아일보』 1931. 4. 28. 「廣梁灣 天日鹽田 少數資閥이 獨占」

관계 등도 있어 급속히 옮길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밖에 식량용 염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는 것으로 민중생활에 직접 지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것이 천일제염을 관영으로 하고, 동시에 그 輸移入에 대한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所以로 되어 있다. 공업용염은 강력히 정부가 직접 관장하도록 요구되지만, 동시에 曹達[소대류]의 제조공업과 서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을 민간사업에 위탁하는 것도 사업 촉진상 하나의 방도가 된다고 결론 내려져, 이에 먼저 大日本塩業株式會社の 공업용 염전개설 출원에 대해 우선 平安南道 平原郡 龍湖面 地先에 1천 2백 정보의 면허를 부여하는 바이다.³²⁾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1937년에 대일본염업주식회사가 식민지 조선에서 최초로 천일제염업에 진출한 기업이 되었다. 1903년에 설립된 일본 식염코크스를 모체로 하는 대일본염업주식회사는 원래 고베에서 대만염을 재생하는 再製鹽 회사였지만, 러일전쟁 당시 관동주로 진출하여 관동주염의 독점적 판매권을 획득하였다. 1915년에는 대재벌 스즈키쇼텐[鈴木商店]을 이끄는 가네코 나오키치[金子直吉]에게 인수되었고, 1917년에는 대만염업과 합병하여 대만염과 관동주염 모두를 취급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1927년 모기업인 스즈키쇼텐의 파산으로 존망의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대만은행 등의 도움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후로 염전 경영이나 염의 수이입은 오히려 확장되었다. 1930년대 후반에는 관동주, 대만 뿐 아니라 만주국과 조선으로도 진출하였으며, 또한 구 스즈키계 기업과의 연대도 깊어져 스즈키쇼텐의 후계회사인 太陽産業, 日商産業, 神戸製鋼所 등과 함께 관동주와 조선 등에 금속마그네슘 공장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가네코 나오키치가 대일본염업을 인수할 당시의 협상 대상자가 앞서 1장에서 소개한 ‘매염사건’의 배후자 시마 토쿠조였다는 것이다. 즉, 대일본염업은 관동주염의 독점 판매권을 노리던 스즈키쇼텐을 견제하기 위해 오사카의 부호 시마 토쿠조를 끌어들어서 1912년에 그를 사장으로 올

32) 『地方專賣局長會議に於ける專賣局長訓示』, 『專賣の朝鮮』 제150호, (財)朝鮮專賣協會, 1937. 5, 11쪽.

려놓았는데, 불과 2년 만인 1914년에 시마 토쿠조가 거꾸로 자신이 소유한 대일본염업 주식의 과반을 스텝키쇼텐에 매도해 버린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시마 토쿠조는 소다공업의 장래성을 과소평가하였고, 또 대일본염업의 청도 진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가져서 쉽사리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³³⁾ 이는 “소금을 지배하는 자가 화학공업의 경영을 지배한다”는 모토를 회사의 경영 방침으로 삼은 가네코 나오키치와 크게 대비되는 행동이었다.

2) 일본 독점자본의 조선 염업 진출과 기계제염의 시도

1937년 2월 대일본염업주식회사가 조선에서 처음으로 민간기업의 자격으로 천일제염사업(공업염 생산)에 진출한 이후, 일본의 대재벌과 독점기업들의 천일염전 축조 신청이 잇달았다. 가네가후치[鐘淵]해수이용공업,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제염공업주식회사, 남선회화학공업주식회사 등이 바로 그런 기업들이다.

[표1] 1940년대 천일염전 축조를 승인받은 민간자본

염전별	주소	허가 면적(町步)	용도
大日本鹽業株式會社	평안남도 평원군	3,000	공업염, 고즙
鐘淵海水利用工業	평안남도 용강군	600	"
東洋拓殖株式會社	황해도 용진군	300	"
朝鮮製鹽工業株式會社	경기도 부천군	549※	"
南鮮化學工業株式會社	전라북도 줄포	300	식량염, 고즙

※ 조선제염공업주식회사의 549정보는 기존 관영염전인 소래염전의 549정보를 대어 받은 것임

[표1]에서 보이듯이 조선총독부로부터 천일염전 축조를 승인받은 민간기업의 염전 면적은 무려 4,200정보에 달한다. 이것은 조선 전매국이 1907년

33) 社史編輯委員會編, 『日塩五十年史』, 1999, 51~52쪽.

부터 1940년에 걸쳐 완공한 관영염전 4,325정보에 맞먹는 면적이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곧바로 천일염전의 축조를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몰심양면으로 적극 후원하였다. 불과 몇 년 전 관영염전으로 신설한 소래염전 549정보를 아무런 조건 없이 조선 제염공업주식회사에게 대여해준 것만 보아도 이들 민간기업에게 거는 조선 총독부의 기대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 넘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이들 민간기업의 천일염전 축조 계획이 전시체제 하의 자재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대일본염업주식회사의 일부 염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완공을 보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그 축조 배경과 사업 진행 과정은 식민지 조선 염업의 획기를 가져온 사건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1937년 가장 먼저 조선 염업에 진출한 대일본염업주식회사는 우량하고 값싼 공염염을 생산함으로써 조선의 소다공업의 발전을 조장하고, 또 일본에 화학공업의 원료를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평안남도 평원군 용호면 淸川江 하류 인근의 간석지에 대규모 염전을 개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 사업 계획의 요지는 첫째, 평안남도 평원군 地先에 3,000정보의 염전을 3기로 나누어 각기 1,000정보씩 5년간에 완성시키고, 둘째, 염 품질 향상을 위한 가공 공장을 건설하여 연간 15만 3,900톤의 분쇄세척염을 생산하며, 셋째, 苦汁 및 鹹水 廢液을 처리하여 칼륨, 브롬, 마그네슘 등의 부산물을 제조하는 시설까지 건설한다는 것이었다.³⁴⁾ 이를 위해서는 염전축조 공사비 408만 엔, 가공공장 건설비 35만 엔 등 총 500만 엔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淸川鹽田으로 이름 붙여진 대일본염업주식회사의 염전은 이듬해인 1938년에 착공하여 1941년 제1기 공사로서 390정보의 완성을 보았고, 1942년이 되어서야 873정보로 증가되었다.³⁵⁾ 『매일신보』에는 1940년 2월에 1,200정보의 제1기 염전을 완성시켰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는 제방공사의 완성을 염전 축조의 완성으로 보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³⁶⁾ 아무튼 원래 계획의 3분의

34) 위의 책, 131~132쪽.

35) 같은 책, 175쪽.

1 정도만 완성시키고, 나머지는 결국 미착공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 채염 목표는 4만 6천 톤이었으나, 1942년의 첫 채염 작업이 약 7천 톤에 그쳤고, 1943년에 2만 3천 톤으로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목표치에는 절반에 불과한 성적이었다.³⁷⁾

가네가후치[鐘淵]해수이용공업은 모기업인 가네가후치실업주식회사가 기존에 메이지광업이 행하고 있던 해수 정제에 의한 마그네슘 제조 사업을 인수하여 1941년 9월에 설립한 회사이다. 가네가후치의 화학 사업은 본래 가네보그룹의 섬유원료 자급화와 대체섬유 개발을 목적으로 개시되었으나, 1940년대 이후에는 금속마그네슘 및 항공기 연료의 제조, 브롬 등을 생산하는 군수 지향의 화학산업체로 변신하였다.³⁸⁾ 천일염전과 공장의 예정지는 광량만염전의 서쪽이고, 이곳에서 고즙과 해수를 직접 이용하여 금속마그슘을 생산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장의 완성이나 조업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동양척식회사의 웅진염전은 1944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4백 42만 엔의 공사비를 들여 황해도 웅진군 동남면 지선 333정보에 천일염전을 축조하는 것이었다. 본래는 1943년에 평안남도 강서군 신정면 삼리의 江西鹽田(230정보)을 1백 33만 엔의 공사비를 들여 먼저 축조할 계획이었으나, 철강 등의 자재 입수와 노무자 모집 곤란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지되어 2차 사업으로 계획된 웅진염전 축조 계획이 먼저 진행되었다.³⁹⁾ 동양척식회사의 영업보고서에 의하면 동양척식회사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관동주에서 제염사업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조선총독부의 간절한 요청과 협조(자재 입수 및 노무자 확보 등)가 있어서 사업이 재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조선총독부로부터 염전 완공 후 염 배상가격의 대체적인 양보도 얻어냈다고 한다.⁴⁰⁾ 그러나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기까지 웅진염전의 완공에 관한 기

36) 『毎日申報』, 1940년 2월 8일자 4면, 「大日本鹽業の 平南鹽田一期工事終了」

37) 田中正敬, 앞의 논문, 315쪽.

38) 鄭安基, 「戰時期『鐘紡グループ』の姿容と鐘淵工業の設立」, 『經營史學』 32-3, 經營史學會, 1997, 41쪽.

39) 「朝鮮ニ於ケル製塩事業經營ノ件」(일본국립공문서관 아시아역사센터 B06050142100), 東洋拓植主植會社, 1944.

사는 보이지 않아 실제로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남선회화학공업주식회사는 1944년 ‘조선의 전기왕’으로 불리던 오구라 나케노스케(小倉武之助)가 설립한 회사이다.⁴¹⁾ 본래는 전라남도 무안군 이로면에 170정보에 달하는 天日煎熬鹽田과 각종 마그네슘 재료를 생산하는 화학약품공장을 총 90만 엔의 공사비를 들여 설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44년 2월 현지조사 결과 토질이 연약하고 지반이 낮아 방조제 공사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아, 다시 전매국의 보류지인 군산항 부근의 苗浦鹽田 예정지를 분양받아 8월부터 228정보 규모의 염전 축조 공사를 개시하였다.⁴²⁾ 하지만 이 역시 戰局의 악화로 9월 하순부터는 건설 자재를 할당하기 어렵다는 전매국의 통지를 받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처럼 대일본염업주식회사 등 일본 독점자본의 조선 염업 진출은 기대에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기존의 관영염전에서는 좀처럼 시도하기 힘든 제염방식의 변화를 준 점이나 조선총독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은 점 등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조선제염공업주식회사가 당시로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특혜 중의 특혜라 할 수 있는 관영의 소래염전 549정보를 대여 받은 사실과도 연결된다. 당시 전매국이 소래염전을 대여한 이유는 1943년 4월에 열린 제염기술자타합회에서 조선제염공업주식회사가 신청한 『소래염전에 기계제염을 병용하는 계획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⁴³⁾

조선제염공업주식회사의 기계제염 병용 계획안에는 염전 경영의 합리화와 효율성 증대, 품질 개선 등 총 11가지의 필요성을 나열하고 있는데, 기존 염전의 축조와 숙성에 소요되는 10년간의 기간을 2년 내외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나 향후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고순도의 식염과 공업염을 생산하겠다

40) 『甕津塩田開設工事ニ関スル件』(일본국립공문서관 아시아역사센터 B06050142300), 東洋拓植主植會社, 1944.

41) 오구라 나케노스케에 대해서는 이형식의 『조선의 전기왕 오구라 나케노스케와 조선사회』(『동양사학연구』 145, 동양사학회, 2018)를 참조.

42) 『昭和十九年, 全羅北道苗浦に天日鹽田の築造許可を受けた小倉武之助氏の南鮮化學工業株式會社に關する調査書』, 『民間資本における天日鹽田築造關係資料(CTA0002822)』, 友邦協會, 1944.

43) 『昭和十八年, 蘇萊鹽田に機械製鹽を併用する計劃案』, 『朝鮮の天日製鹽に關する資料』(CTA0002790)

는 계획 등은 당시 조선총독부의 관심을 크게 끌 만한 것이었다. 특히 一貫作業의 경영 아래 제염생산의 부산물인 苦汁을 효율적으로 채취하여 전량을 苦汁工業의 원료로 가공하겠다는 계획은 제염업을 발판으로 향후 화학공업으로 도약하려는 조선제염공업주식회사의 야심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동 회사는 위의 계획안을 통해서 진공전오염의 생산비 및 생산량을 추정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의 [표2]과 같았다. 천일염에 비해 진공전오염의 생산비는 1.6배가량 높지만, 그 생산량은 1.8배, 그리고 고즙 수량은 3.2배나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지름 14피트 4중효용 방식의 진공식 증발장치를 설치하려는 진공염 공장의 건설비는 5,328,000엔으로 계상되었다.

[표2] 천일염·재래전오염·재제염과의 비교에 의한 진공전오염의 예상 생산비 및 생산량

구분	단위	진공전오염	천일염	재래전오염	재제염
생산비	100kg	1.170~1.673엔	0.757~1.030엔	2.378엔	3.720엔
생산량	549정보	60,115톤	32,940톤		
정보당생산량	1정보당	109.5톤	60톤		
苦汁收量	549정보	28.8톤	9.1톤		
NaCl 함유량	%	93%	85%	83%	88%
판매가격	100kg	3.333엔	2.033엔(1등염) 1.783엔(2등염)	3.526엔	3.678엔

일본에서 진공식 기계제염이 개발된 것은 1909년으로, ‘일본의 에디슨’으로 불리는 발명왕 스즈키 도우자부로[鈴木藤三郎]에 의해서였다.⁴⁴⁾ 일본의 시조우카식[枝条架式] 염전에서 얻어진 함수를 多重效用 진공식 증발장치에서 보일러의 발생 증기를 熱源으로 하여 소금을 만들어낸 것이다. 스즈키제염소에서는 연산 3,000톤의 염을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었는데, 여기서 생산된 염의 NaCl 함유량은 90% 이상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제염 설비에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어 결국 그 해 말에 스즈키는 파산하

44) 村上正祥, 『明治期における製鹽技術』, 『日本鹽業大系』近代編, 日本專賣公社, 1982.

고 말했다. 이후 일본전매국이 이러한 진공식 증발법 시험을 진전시켜, 1927년 전매국 직영의 무코지마[向島]제염소에 지름 8피트의 증발부(蒸發缶) 3기를 주체로 자가발전하는 제1호 진공식 제염공장을 완성시켰다. 1929년에 완성된 주안염전의 진공식 공장은 일본의 제3호 공장이다.⁴⁵⁾ 그러나 이러한 진공식 기계제염이 실용화되는 시기는 상당한 시간을 거쳐야 했다. 기계제염에는 상당액의 자금이 들뿐더러 전시체제기에 들어서서 철강 등의 자재 수급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1936년 일본의 염전에 총 25개의 진공식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일본 전매국의 계획은 결국 10개의 공장 건립으로 끝나고 말았다.

빠른 증산과 경영의 합리화 모두를 이룰 수 있다는 기계제염의 당위성 위의 「소래염전에 기계제염을 병용하는 계획안」 11가지 이유를 모두 거론하지 않아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지극히 원론적인 사항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염 생산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이루어졌느냐는 것인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43년은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수렁 속에 빠지며 극도의 경제적 파탄 상태에까지 이른 시기였다. 결국 조선제염공업주식회사도 이듬해에는 진공식 제염장치의 설치를 포기하고 일부 준공된 고즙처리 설비를 이용하여 염전으로부터의 함수를 煎熬하여 염을 얻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⁴⁶⁾

한편 1942년에 자본금 5백만 엔이 출자되어 설립한 조선제염공업주식회사는 그 주주명부를 살펴볼 때, 전체 10만주 가운데 56.9%의 보유주식을 지닌 제1대 주주가 대일본염업주식회사였다. 경성부윤과 전매국장 등을 역임한 타카하시 사토시[高橋敏]가 대표취체역이고, 다나가 신고[田中新吾]나 야마기시 무츠조[山岸睦造]와 같은 일본 및 조선 전매국의 제염기술자들이 주주와 주요 임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매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설립된 회사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이 시행하고자 한 진공식 기계제염법은 이미 1934년 주안 제4구 염전의 진공식 공장에서 시험된 바가 있

45) 村上正祥, 「わが国における製塩法の発達: 明治以降の製塩法の発展」, 『日本海水学会』 36-2, 1982, 70쪽.

46) 「朝鮮製鹽工業株式會社概要」, 『在朝鮮企業現狀概要調書4(製鹽)』(CTA0001384), 1946.

고, 또 1929년에 준공된 조선염업주식회사 인천제염소에서는 天日鹹水煎熬法에 의한 전오염이 꾸준히 생산되고 있었다.⁴⁷⁾ 따라서 조선제염공업주식회사의 설립은 대일본염업주식회사가 이러한 물적 토대를 갖추고 있는 조선염업의 진출 수단으로 손쉽게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조선제염공업주식회사의 계획안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도 苛汁 증수의 중요성, 그리고 이에 따른 이익이 강조되고 있으며, 아울러 제염업과 고즙공업을 ‘一貫作業’의 경영 아래에서 염의 생산비를 합리화시킬 수 있다고도 한 점이다. 고즙의 생산을 제염업에서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제염작업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고즙은 화학공업에서 소다공업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금속마그네슘공업의 원료이며, 이밖에 제약업은 물론 독가스 생산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대일본염업은 1937년 공업용 염전인 청천강염전 1,200정보의 축조를 허가를 받고 처음으로 조선에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1939년에는 평안북도 신의주에 금속마그네슘 제조공장인 도요[東洋]금속공업주식회사(이후 朝鮮神鋼金屬으로 개칭)를 설립하기도 하였고,⁴⁸⁾ 또 1942년 인천에 조선제염공업주식회사라는 별도의 계열 회사를 설립하기도 한 것이다. 1945년 3월 말 기준의 조선제염공업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천일염 55,449톤, 염화마그네슘 10,000톤, 기타 브롬·칼륨·석고 등을 판매하여 총 3,626,288엔의 수입금을 얻었고, 생산에 필요한 경상경비 총 2,054,400엔을 지출하여 총 1,571,888엔의 수익금을 내었다. 고정자산 상각비, 조세 및 공과금, 지불이자,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제한 순이익금은 425,000엔이었다. 총수익금의 46%가 천일염 판매가 아닌 고즙처리대금에서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⁴⁹⁾

47) 류창호, 『일제강점기 조선염업주식회사 설립과 ‘인천염전’의 운영 실태』, 『도시마을 생활사: 용현동·학익동』, 인천광역시 남구, 2016 참조.

48) 朝鮮神鋼金屬의 주주 구성은 神戶製鋼所 70%, 太陽産業 15%, 大日本鹽業 15%이다. 고베제강소와 태양산업은 모두 대일본염업과 함께 과거 스키쇼텐의 산업콘체른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던 기업이다.

49) 『朝鮮製鹽工業株式會社概要』, 『在朝鮮企業現狀概要調書4(製鹽)』(CTA0001384), 1946.

4. 천일염전에서의 ‘끓汁’ 생산과 마그네슘공업의 발전

1) 고즙과 금속마그네슘공업

제염 작업에서 끓汁의 효용성을 처음 발견한 것은 아마도 천일제염 기술자들일 것이다. 다우다습한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에서는 채염 기간이 외국에 비해 짧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즙을 포함하는 고도로 농축된 함수, 즉 보메(Baume) 20도 정도의 母液을 ‘해주’라는 시설에 저장해 두고 이를 結晶池로 들어온 새로운 함수와 조금씩 섞어 순간적으로 소금 결정체를 만들어 내었다. 따라서 천일제염 기술자들은 고즙을 ‘소금의 씨앗’으로 부르며 소중히 여겼다. 그러나 앞서 2장에서도 밝혔듯이 고즙은 제염업뿐만 아니라 제약업과 각종 마그네슘공업에서도 중요한 원료가 된다.

1910년대에 이미 조선에서도 이러한 고즙을 이용하는 화학공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1917년 4월 15일 『釜山日報』의 기사에 따르면 부산의 자본가 카시이 켄타로[香椎源太郎] 등이 경남과 경기도 남양 지역에서 고즙을 원료로 하여 브롬과 염화칼륨, 요오드 등을 제조하고 있었다.⁵⁰⁾ 당시의 고즙 채취는 천일염전보다는 주로 민간의 전오염 산지에서 이루어졌고, 제조품목으로 보아 대부분 약품제조용에 소량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30년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이화학연구소(理化學研究所, 이후 ‘리켄’으로 약칭)의 공업시험소에서 고즙을 원료로 하는 금속마그네슘 제조에 성공하면서 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 금속마그네슘은 각종 내화용 벽돌과 클링커(clinker), 비행기, 자동차 등에 쓰이는 경금속의 재료가 되었고, 특히 군수산업으로써의 가치가 높았다.⁵¹⁾ 이러한 금속마그네슘은 고즙에서 추출하는 방법 외에도 ‘마그네사이트(magnesite)’라는 광석에서 추출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조선에서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 또한 함경남도 단천군에서만 약 6

50) 『釜山日報』 1917. 4. 15. 「苦汁と化學工業」

51) 『中外商業新報』 1935. 1. 26. 「マグネシウム：飛躍的なる需要増加(上)―軍事上の価値重大」 및 『中外商業新報』 1935. 1. 27. 「マグネシウム：軍事的需要より一般需要へ(下)―用途上の新傾向」

억 5천 7백만 톤(향후 2천 년간의 소비량)을 추정 할 만큼 풍부하였다.⁵²⁾ 고
 즈 역시 조선에는 방대한 천일염전이 있으므로 그 산출액은 크게 기대될 만
 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대는 1935년 7월 12일, 서울에 온 이화학연구소장 오
 오코치 마사토시[大河内正敏] 박사의 조선히텔 강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강연에서 오오코치 소장은 조선의 풍부한 마그네사이트 매장량과 고습 산
 출량을 기반으로 일본이 세계 제일의 금속마그네슘 생산국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산업전력과 해양·철도 운송의 편의만 갖추어진다면 앞으로
 조선이 최적의 마그네슘 공업지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리고 말미에
 서 금속마그네슘공업 등 화학공업은 다각적, 연쇄적 경영이라 할 소위 ‘芋蔓
 式’ 경영으로 생산원가 인하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
 였다.

금속마그네슘 精鍊의 理研法은 해수 중의 苦汁이 原料이다. 우리들은 금속마그
 네슘 정련의 생산비를 低下하는 한 수단으로 하여 마그네사이트공업의 芋蔓式
 경영법의 案을 세웠다. 이에 생각되는 일은 理化學研究所에서 물리도 화학도 전기
 도 기계도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는 고마움이다. 금속마그네슘 정련에 조
 금도 관계없는 것처럼 보였던 기계나 전기의 연구 발명이 소위 多角經營, 즉 芋蔓
 式 경영법으로 되고, 여기저기 연결되어서 생산원가 인하에 대해 뜻밖의 주역을
 맡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화학의 발명에서도 발명 그것은 우수하였지만 原料의 관
 계나 부산물의 시장성이 없었기 때문에 공업화가 곤란하였던 것이 芋蔓式 경영의
 것과 결합되면서 처음으로 발명의 효과가 나타나 유리한 공업이 되었다.⁵³⁾

화학공업은 마치 고구마 덩굴처럼 전기, 기계산업 등 관련 산업이 함께 발
 전해야 한다는 ‘우만식’ 경영법은 금속마그네슘공업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일관산업으로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미 조선에서는

52) 『京城日報』 1936. 11. 13~17. 「朝鮮の化学工業②: 内鮮対立の虞あるマグネシウム工業」

53) 『京城日報』 1935. 7. 14~19. 「日本のコスト低下原因, 優秀な機械と技術: 理化学研究所長 大河内博士講演」

리켄법[理研法]에 의한 마그네슘 정련의 원료가 되는 고즙을 천일염전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 또 전력 역시 日窒콘체른에 의해 192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대규모 수력발전사업(부전강, 장진강, 수풍 등)이 1930년대 후반 경에는 대부분 완공을 보고 있었다. 1940년에는 발전력이 66만 9천KW에 이르렀으며, 해방 직전에는 148만 9천KW까지 올라섰다.⁵⁴⁾ 이러한 전력자원이 공급되면서 일질계인 일본마그네슘금속을 비롯하여 미쓰비시마그네슘공업, 조선경금속, 미쓰이유지화학(구 협동유지), 도요금속공업 등 금속마그네슘 공장이 속속 설립되었다. 특히 1940년 압록강수력전기의 제1기 계획으로 세워진 수풍발전소의 건립으로 약 10만KW의 전력이 공급되자, 압록강과 대동강 하구에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 경금속공업 공장들이 신설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대일본염업주식회사의 관계회사인 도요금속공업과 조선화학주식회사가 신의주에 공장을 세웠고, 조선이연금속주식회사가 평양에 공장을 세웠다.⁵⁵⁾ 이러한 공장들은 수풍발전소의 전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시적으로 고즙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천일염전과도 가까워서 그 발전의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이제는 천일염전에서 고즙을 추출해 내는 산업이 필요했다.

전매국은 193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고즙 수요의 증가에 대비한 대책을 세웠다. 1937년 3월, 무네스에 전매국장은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총 3기에 걸친 고즙공업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제1기 계획은 주안과 광량만에 각각 300석씩 고즙을 추출하는 것이고, 제2기 계획은 이를 50만석으로 확장하여 야머구치현의 우베[宇部]로 이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3기 계획은 조선에서 고즙공업을 대대적으로 확장시켜 직접 마그네슘을 제조하는 것이었다.⁵⁶⁾ 고즙공장은 액체상태의 고즙을 고형고즙(固形苦汁) 형태로 만드는 것인데, 해방 전까지 제3기 계획까지의 완전한 이행은 이루지 못했지만 상당량의 고즙을 생산한 것은 확실하다. 1943년까지 광량만염전에서는 조선이연

54) 호리 가즈오(주익종 역), 『조선의 전력업과 일본자본』, 『한국 근대의 공업화』, 전통과 현대, 2003, 260쪽.

55) 『毎日申報』 1939. 5. 28. 2면, 『鴨江水電開發로 各種化學工業簇出』

56) 『毎日申報』 1937. 3. 24. 2면, 『朝鮮에서 ‘苦汁’生産 마그네슘도 將來는 製造』

금속주식회사가, 주안염전에서는 다케다제약주식회사가, 소래염전에서는 조선제염공업주식회사가 각각 영업을 하고 있었다.⁵⁷⁾ 전매국은 이러한 고즙공장을 남동, 군자, 남시염전 등으로 더욱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 고즙과 제약업

고즙에서 금속마그네슘 다음으로 중요한 원료는 흔히 ‘臭素’라고 불리는 브롬이다. 브롬은 주로 제약용으로 쓰였는데, 이러한 브롬을 채취하기 위해 가장 먼저 조선에 진출한 회사가 오사카에 본점을 둔 다케다[武田]제약이었다. 다케다제약은 1937년 전매국으로부터 주안염전의 고즙과 시설들을 대여받아 그해 4월부터 브롬 생산에 나서게 되었다.⁵⁸⁾ 브롬은 진정제, 지한제, 해열제, 수면제 등 다양한 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주요 원료이고, 또 화학병기 중의 하나인 독가스의 원료가 되어 군수산업으로도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었다. 고즙 1石당 약 0.15kg의 브롬이 채취되었는데, 당시 연간 450톤의 수요 중 절반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주안에서의 고즙공업의 성공 여부는 국방상, 국책상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로 취급받고 있었다.

다케다제약 주안공장에서 브롬을 생산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메 비중 31도에서 생산된 고즙을 필터 프레스(filter press)에서 여과한다. 여과된 액은 濃厚釜에서 섭씨 약 108도까지 가열하고, 결정지로 옮겨 섭씨 60도까지 냉각하여 식염을 채취한다. 식염을 원심분리기에서 분리하여 얻은 母液은 다시 농후부에서 섭씨 120도까지 가열하고, 이때 가마 안에서 식염 일부가 結晶하는 것을 채취한다. 그 모액은 섭씨 128도까지 농축하는데, 1시간 정도 방치하여 固形鹽이 침전하면 상층의 액을 원심분리기로 분리한다. 모액을 탱크로 옮겨 충분히 냉각시키면 카널라이트(carnallite)의 결정을 얻는다. 모액이 투명해질 때까지 두었다가 이를 브롬 가마로 옮겨

57) 『毎日申報』 1943. 10. 9. 3면, 「간수 工場을 増設, 專賣局에서 南洞, 君子, 南市鹽田에」 이밖에도 신의주에서 고즙을 처리하는 도요금속공업이 1942년부터 조업을 개시하였으므로, 1943년 현재 조선에 있는 고즙처리공장은 모두 4곳이었다.

58) 『朝鮮新聞』 1937. 3. 19. 「鹽田의 廢物 苦汁から大發見: マグネシウムと臭素製造明朗な快ニュース」

염소산소다 및 황산을 遊離시키면 브롬을 얻을 수 있다. 브롬을 채취한 廢液은 석탄으로 충분히 중화시킨 후 저장한다. 폐액을 蒸發釜에서 섭씨 160도까지 농축하면 固形苦汁이 된다.⁵⁹⁾ 브롬의 제조에는 이와 같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브롬 외에도 식염, 고히염, 황산마그네슘, 고히고즙, 그리고 칼륨비료의 원료가 되는 카널라이트 등을 얻을 수 있었다.

3) 고즙 채취가 製鹽 減收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서술했던 바와 같이 고즙은 화학공업뿐 만 아니라 천일제염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료이다. 순도 높은 공업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염 성분상 최대한으로 고즙을 없애야 하지만, 기상조건이 불리한 우리나라에서 소금을 結晶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즙이 필요했다. 따라서 이러한 고즙을 반출하여 화학공업의 원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피하게 제염 생산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란 점을 충분히 예측하게 한다.

1938년경 전매국은 천일염 결정 과정에서 나오는 고즙을 結晶母液에서부터 채집하는 시험을 실시하도록 각 제염관서에 명하였다. 금속마그네슘의 원료가 되는 고즙을 천일염전에 채취할 경우 천일제염 생산량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이 시험에 관해서는 마침 우방협회 『조선염업사료』에 주안과 광량만 두 염전에서 실시한 「苦汁廢棄에 의한 鹽減收 조사 시험성적서」가 실려 있어 그 결과를 알 수 있다.⁶⁰⁾ 말이 고즙 ‘폐기’이지 실상은 고즙 ‘반출’인 시험이다.

먼저 주안염전의 시험성적서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안염전은 이미 1년 전인 1937년에 제5구 염전의 2정보를 시험염전으로 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제5구 2호의 丙염전에서 동측 2정보를 고즙폐기 염전으로 하고, 역시 같은 면적의 서측을 기존방식의 염전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다. 시험기간은 1937년 6월 24일부터 동년 8월 20일까지였지만, 7월 22일까지는 날씨 관계

59) 『昭和十三年, 天日鹽田産苦汁利用及藥品製造關係資料』, 『專賣局朱安出張所關係資料』(CTA0002798)

60) 『昭和十四年, 金屬マグネシウム原料と一て塩田産苦汁の採集』, 『專賣局南南海南出張所關係資料』(CTA0002816)

로 고즙의 比重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아 7월 23일 이후 32일간을 유효일수로 하였다. 시험방법은 양 염전의 저류 함수를 동등의 비중으로 분할하고, 고즙폐기 염전은 채염 직후 모액의 비중이 31도를 초과할 때 결정면적의 약 1할 상당량을 폐기하는 것으로서 東西 염전의 채염량과 성분 등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 실험으로 얻어진 염의 생산량과 분석성적은 아래 표와 같다.⁶¹⁾

【표3】 1937년 주안염전 내 고즙폐기 염전과 재래식 염전과의 염 생산량 비교표

염전별	면적	결정면적			생산능력 (kg)	채염 실수량 (kg)	능력에 대한 생산비율
		연면적(m ²)	유효일수	1일1정보당			
고즙폐기염전	2町	44,118	32	0.68935	16,230	25,416	1.566
재래식염전	2町	44,887	32	0.70136	15,144	24,708	1.632
비교				-0.01201		-708	-0.066

위의 시험으로 고즙폐기 염전에서 약 6.6%가 감소되는 708kg의 감수량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비중 31도의 폐기된 고즙은 모두 35.5석이 나와서 고즙폐기 기간을 31일로 할 때 1일 1정보당 폐기량은 0.573석이였다. 아울러 위 실험을 동등의 조건으로 주안염전 198정보 전체에서 총 제염기간(4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 198일 간 실시한다고 상정한다면, 염 감수량은 약 911,394kg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주안염전에서의 시험은 전체 제염기간 중 일부 기간만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어서 그 시험의 적확 여부를 담보할 수 없었다. 전체 제염기간 중에는 기상 변화 등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는 일이 많아서 한 가지 시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광랑만염전에서 실시한 시험은 시험염전의 전체 제염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뢰성이 높았다.

광랑만염전에서의 시험은 1938년 3월 31일부터 10월 8일까지(222일간)의 1차 시험, 1939년 3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218일간)의 2차 시험으로 하여

61) 專賣局 朱安出張所, 『昭和十三年度, 朱安天日鹽田苦汁廢棄に依る鹽減收調査』, 同上書.

시행되었고, 모두 광량만 제5구 3호염전 3.25정보를 시험염전으로 하였다. 주안염전과 마찬가지로 결정모액 31도를 초과하는 고즙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전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1정보당 100석을 한도로 하였다. 이 두 차례의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다.⁶²⁾

[표4] 1938~1939년 광량만염전 내 시험염전의 월별 제조고 및 생산 비율(단위: kg)

월별	1938년 시험				1939년 시험			
	재래법	고즙폐기법	증감량	비율	재래법	고즙폐기법	증감량	비율
4월	46,249.7	45,271.9	-977.8	0.98	35,812.4	35,812.4	0.0	-
5월	47,885.1	44,421.7	-3,463.4	0.93	76,322.5	76,322.7	0.2	-
6월	60,672.9	52,445.9	-8,227.0	0.86	70,852.1	65,268.6	-5,583.5	0.92
7월	34,929.7	33,865.0	-1,064.7	0.97	59,162.9	55,981.5	-3,181.4	0.95
8월	46,111.7	42,226.5	-3,885.2	0.92	80,800.5	70,322.2	-10,478.3	0.87
9월	19,136.0	16,857.2	-2,278.8	0.88	1,693.0	1,941.0	248.0	1.15
10월	4,958.0	5,295.0	337.0	1.07	4,499.0	4,142.6	-356.4	0.92
합계	259,943.1	240,383.2	-19,559.9	0.92	329,142.4	309,791.0	-19,351.4	0.94

광량만염전의 시험 결과 1938년에는 19,560kg, 1939년에는 19,351kg의 염 생산이 減收되었다. 각각 8%와 6%의 감수율을 보인 것이다. 32도 비중의 고즙 폐기량은 1938년 97.622m³(1정보당 30.037m³), 1939년 59.776m³(1정보당 18.393m³)였다. 따라서 1937년에 실시한 주안염전의 시험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염전 모두 1정보당 100석(또는 결정면적의 약 10%) 정도의 고즙을 폐기할 경우, 6~8%의 생산 감수를 예상하는 것이었다.

천일제염을 하기에 중국 등 다른 외국에 비해 기상환경이 불리한 조선의 조건에서 고즙은 천일염 생산의 향상성을 유지시켜 주는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아무리 고즙이 떠오르는 화학산업의 중요 원료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모두 반출시켜 버린다면 조선에서의 천일제염은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린다.

62) 專賣局 廣梁灣出張所, 『昭和十三年度, 苦汁廢棄試驗鹽製造試驗報告』 및 『昭和十四年度, 苦汁廢棄試驗鹽製造試驗報告』, 同上書.

이러한 염려는 위의 시험보고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고즙폐기 방법〉

제염기간을 통해 1정보당 100석 내외의 폐기로 한다면 과거 2개년 폐기 실적량의 6할 5푼에 상당함. 이것의 폐기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최선의 주의를 쏟을 것

- 1) 最盛期까지의 폐기를 일정한도에서 멈추고, 最盛期의 다량 생성시에는 꼭 필요한 것 이외는 폐기하는 것으로 함. 雨期 후에도 일정 한도로 폐기하는 방법
- 2) 제염기간을 통해 전체를 폐기하지 말고, 전량의 6할 정도 폐기하고 나머지 여분은 재래법과 같은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 등 實地에 맞추어 연구, 감산량을 최소한도로 멈추는 식으로 공부할 것⁶³⁾

이처럼 전매국은 고즙을 전체 제염기간이 아닌 最盛期에 폐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제염 준비기간이나 최성기에 이르기 이전 기간에는 최대한 고즙 폐기를 중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위의 시험에서 고즙 폐기량을 1정보당 100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필자가 추측컨대 각 염전에 이미 총독부 측으로부터 고즙 반출에 대한 할당량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보았듯이 고즙을 통해 생산되는 마그네슘 제품들은 자동차, 비행기 제작의 재료가 됨은 물론, 독가스와 같은 화학무기도 생산할 수 있었으므로 전시체제 아래에서 고즙공업은 중요 군수산업으로서 보호와 지원이 아껴지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수입염 수급의 곤란을 받고, 인력과 자재난에 의해 염 생산량은 점차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총독부의 고즙 생산 독려는 식민지기 마지막까지 더욱 노골화하였다.

1943년 전매국 鹽蓼課長이 전국 제염관서장에게 보낸 통첩문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전쟁이 한창인 전황 속에서도 브롬 및 금속마그네슘 공업의 중요자원인 고즙의 생산은 끊임없이 독려되고 있었다. 특히 이때부터 전매국의

63) 專賣局 廣梁灣出張所, 「昭和十三年度 苦汁廢棄試驗 鹽製造試驗報告」, 同上書.

방침이 제염과 함께 고즙의 증산을 함께 모색하는 併進主義로 전환된 점이 눈에 띈다.⁶⁴⁾ 고즙의 반출이 계속되는 한 제염의 증산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제염과 고즙의 병진주의라는 상호 모순된 정책이 추진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모순된 정책의 결과가 실패로 끝나고 말았음은 통계적으로도 증명된다. 1940년대 이후 공업염과 식량염 증산을 위한 천일염전 확장이 대규모로 진행되었음에도, 그 생산량은 오히려 떨어지고 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즉, 1939년 4,328정보인 천일염전의 면적은 1945년 5,925정보로 약 1.4배 늘어났지만, 천일염의 생산량은 1939년 431,355톤을 정점으로 1940년 281,055톤, 1941년 284,391톤, 1942년 264,380톤으로 계속 하락하였다. 통계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1943년, 1944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1943년 제염 생산의 목표량은 392,338톤이었지만 1944년에는 363,418톤으로 낮추어 잡고 있다. 이는 실제 생산량이 목표량에 크게 못 미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암시한다.⁶⁵⁾

또한 1940년대 이후 무리한 고즙 반출이 제염 생산량을 저하시켰을 것이라는 가정은 실제로 조선의 천일염전에서 근무한 염업 기술자의 구술 기록을 통해 사실로서 증명된다. 1967년 우방협회의 녹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이 시카와 다케요시[石川武吉] 前 전매국 기사의 발언을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은 1정보당입니다. 다이쇼 11년(1922)부터 쇼와 19년(1944)까지의 1정보당 생산량인데요, 다이쇼 11년에 2만 7,000톤. …(중략)… 여기부터 쇼와 원년(1926)에 3만 8,000톤. 쇼와 5년(1930)에 5만 9,000톤. 그때부터 쇼와 10년(1935)에 9만 9,000톤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그리고 쇼와 17년(1942), 5만 1,000톤. 그 다음 쇼와 17, 18, 19년 이렇게 가는데요. 염전에서 고즙을 채취하는 일이 시작되어 생산이 떨어진 것입니다. 마그네슘 공장에서 고즙을 채취했는데, 그 때문에 마그네슘으로 돌린 것이지요. 그래서 소금 생산량이 떨어졌습니다.⁶⁶⁾

64) 石川武吉 編, 『朝鮮の天日製鹽に關する資料總說編』(1973), 『朝鮮の鹽業』, 友邦協會, 1983, 111쪽.

65) 류창호, 『식민지기 인천의 근대 제염업』, 보고사, 2017, 231쪽.

66) 宮田節子 監修, 『未公開資料 朝鮮總督府關係者 錄音記錄(12)-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專賣制度-鹽業を中心に-』, 『東洋文化研究』 13, 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2011, 466~467쪽.

이와 같은 자료와 증언을 볼 때, 기존 연구에서 말하는 전시체제기의 제염 생산 하락 원인을 단순히 자재 및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식민지기 일본으로 향한 조선에서의 염의 이출은 없었다고 하지만, 이처럼 일본은 천일염 증산의 중요 자원인 고즙을 반출함으로써 조선의 제염 생산력을 급속히 저하시키고 말았다.

5. 맺음말

1930년 「염수이입관리령」 반포를 통해 조선총독부는 국내 소금 소비량의 90%를 차지하는 천일제염의 독점적 운영을 성취하였고, 또 이를 바탕으로 제4기 천일염전 확장을 통해 식염의 자급자족은 물론, 화학공업의 발흥에 대응하는 공업염 생산까지 성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NaCl 함유량 90% 이상을 요구하는 공업염 생산은 사실 海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동아시아의 자연적 환경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1930년대 후반부터는 기존에 시험 생산에 그치고 말았던 기계제염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명분을 걸고 일본의 독점자본들이 대거 조선 염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1937년 대일본염업주식회사를 시작으로 가네가후치[鐘淵]해수이용공업,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제염공업주식회사, 남선화학공업주식회사 등 일본의 민간기업이 조선총독부로부터 천일염전 축조를 승인받은 염전 면적은 무려 4,200정보에 달한다. 이것은 조선 전매국이 1907년부터 1940년에 걸쳐 완공한 관영 염전 4,325정보에 맞먹는 면적이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곧바로 천일염전의 축조를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적극 후원하였다.

한편 전시체제기의 천일염전은 더 이상 인간 생존의 필수품인 식염이나 소다공업의 원료가 되는 공업염 등 단순히 소금만을 생산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종래의 폐기 대상에 불과했던 소금 생산의 부산물 고즙과 브롬 등이 마그네슘공업의 발흥에 따라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모든 천

일염전에서 고죽 처리 시설을 부설하며 그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를 통해 조선에 진출한 독점자본이 도요금속공업주식회사, 조선이연금속주식회사, 다케다제약주식회사, 조선제염공업주식회사 등이다. 이들 기업들은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일관작업으로 함께 발전해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염전 시설은 물론, 전력 및 철도 수송 등 조선 내 기반시설 이용에 엄청난 특혜를 받으며 전시 상황 속에서도 급속한 발전을 성취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1930년대 이후 조선 염업 내에서의 통제정책(염 전매제)과 생산체제의 변화 과정을 살펴봤을 때,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전시체제기 조선 염업의 특징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제염업의 공업화와 염 전매제의 이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필자가 글의 서두에서 제기했던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정리해 보겠다.

첫째, 1930년대 이후 조선총독부의 염 전매정책에 대한 의문이다. 1937년 대일본염업주식회사의 진출을 시작으로 다수의 민간기업이 조선총독부로부터 천일염전 축조 허가를 받은 사실은 확실히 종래 민간기업의 천일염전 축조를 금지한 염 전매제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트리는 것이었다. 또한 이는 민간소비를 극도로 억제하는 통제정책인 1942년에 발표된 「염 전매령」과도 분명히 모순되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전시체제기 제국 정부로부터 공업염 증산의 획기적인 방안을 요구받은 이상 별다른 방안이 없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규모의 염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본 독점자본의 기술과 자금이 필요했고, 이들의 조선 염업 진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였다. 아울러 이들 독점자본이 조선에 진출한 이후로는 식민지 당국자 사이에서 마차 염전매제를 폐기하고 자유판매제로 돌입한 것처럼 발언한 일도 있지만, 1945년 해방까지 일제가 자유판매제로 전환한다는 그 어떠한 법률적 체제를 만든 사실도 없다. 따라서 1937년 이후 일본 독점자본의 조선 염업 진출은 전시체제기 공업염 생산의 획기적 증산을 목표로 한 임시방편적 조치에 불과하다. 또한 조선인 민간자본의 천일염전 조성은 한 사례도 찾을 수 없어 여전히 금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1940년대 제염 생산력 하락에 대한 의문이다. 전시체제기 신설염전

이 급속히 확장되는 상황 속에서 제염 생산력이 계속해서 하락했던 이유는 물론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자재 부족과 인력난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일제 말 거의 모든 자료와 보고서가 이를 원인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염업 생산체제의 변동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파악하고 싶다. 앞서 살펴 본 일본 독점자본이 戰局의 악화 속에서도 조선으로의 진출을 결정한 것은 단순히 ‘産業報國’하려는 애국적(?) 결단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들은 명목상 공업염 생산에 획기적인 증산이 가능한 기계제염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실현시킨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반면에 이들이 조선의 염전에서 서둘러 시설한 것은 마그네슘공업의 원료가 되는 고즙 처리 시설과 가공 공장이었다. 고즙과 브롬·칼륨·석고 등 제염 작업의 각종 부산물을 가공·처리하여 얻어지는 수익금이 염전 경영에서 얻어지는 총수익금의 40% 이상을 차지한 것만 보아도 이들의 목표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가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즙은 ‘천일염의 씨앗’으로 불릴 정도로 천일제염의 생산력 증가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이기도 했다. 따라서 1940년대 이후 이러한 과도한 고즙 반출은 역으로 제염 생산력을 하락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말았다.

■ 참고문헌

1. 자료

- 『京城日報』
『大阪毎日新聞』
『大阪時事新報』
『東亞日報』
『毎日新報』
『民間資本における天日鹽田築造關係資料』(국가기록원 CTA0002822)
『釜山日報』
『神戸新聞』
『鹽務關係事務打合會關係書類』
『鹽田築造ノ件』(국가기록원 CJA0014149)
『外務省茗荷谷研修所旧蔵記録』(일본국립공문서관 아시아역사센터)
『齋藤實關係文書』(日本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所藏 謄寫版), 1929.
『在朝鮮企業現狀概要調書4(製鹽)』(국가기록원 CTA0001384)
『專賣の朝鮮』(朝鮮專賣協會)
『專賣局南市海南出張所關係資料』(국가기록원 CTA0002816)
『專賣局朱安出張所關係資料』(국가기록원 CTA0002798)
『朝鮮』(朝鮮總督府)
『朝鮮の鹽業』, 朝鮮總督府 專賣局, 1937.
『朝鮮の天日製鹽に關する資料』(국가기록원 CTA0002790)
『朝鮮新聞』
『朝鮮鹽業史料 總說篇: 朝鮮の天日製塩に關する資料』(국가기록원 CTA0002790)
『朝鮮日報』
『朝鮮專賣史』, 朝鮮總督府 專賣局, 1936.
『中外商業新報』
『中外日報』

2. 단행본

- 姜在彦編, 『朝鮮における日窒コンツェルン』, 不二出版, 1985.
大塩武, 『日窒コンツェルンの研究』, 日本經濟評論社, 1989.
渡辺徳二編, 『現代日本産業發達史 13 化學工業(上)』, 現代日本産業發達史研究會, 1968.
류창호, 『식민지기 인천의 근대 제염업』, 보고서, 2017.
社史編輯委員會編, 『日塩五十年史』, 1999.
서정익, 『전시일본경제사』, 해안, 2008.
호리 가즈오(주익중 역), 『한국 근대의 공업화』, 전통과 현대, 2003.

3. 논문

- 宮田節子 監修, 『未公開資料 朝鮮總督府關係者 錄音記録(12)-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專賣制度-鹽業を中心に』, 『東洋文化研究』 13, 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2011.
- 김희신, 『재조선 화교 염상과 조선총독부의 외염 관리』, 『중국근현대사연구』 77, 중국근현대사학회, 2018.
- 渡辺惇, 『外地塩業と日本塩業』, 『日本塩業史大系』近代(稿), 日本専売公社, 1982.
- 류창호, 『일제강점기 조선염업주식회사 설립과 '인천염전'의 운영 실태』, 『도시마을 생활사: 용현동·학익동』, 인천광역시 남구, 2016.
- 류창호, 『한국 근대염업의 네트워크와 그 특성』, 인하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 손정목, 『일제하 화학공업도시 흥남에 관한 연구』(상)(하), 『한국학보』 제16권 2~3호, 일지사, 1990.
- 兒玉州平, 『満州塩業株式會社の設立意義: 過当競争下日本ソーダ製造業との関連に注目して』, 『國民經濟雜誌』 210(6), 神戸大学經濟經營学会, 2014.
- 이형식, 『'조선의 전기왕' 오구라 다케노스케와 조선사회』, 『동양사학연구』 145, 동양사학회, 2018.
- 田中正敬, 『植民地期朝鮮の塩需給と民間塩業 - 1930年代までを中心に』, 『朝鮮史研究会論文集』 35, 1997.
- _____, 『1930年代以後の朝鮮における塩需給と塩業政策』, 『姜徳相先生古稀・退職記念日朝關係史論集』, 新幹社, 2003.
- 田中正敬, 『日本における工業用塩需要の擴大と朝鮮塩業』, 『人文科學年報』 36, 專修大學 人文科學研究所, 2006.
- 鄭安基, 『戰時期「鐘紡グループ」の変容と鐘淵工業の設立』, 『經營史學』 32-3, 經營史学会, 1997.
- 糟谷憲一, 『戰時經濟と朝鮮における日窒財閥の展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2, 1975.
- 村上正祥, 『わが国における製塩法の發達: 明治以降の製塩法の發展』, 『日本海水学会』 36-2, 1982.
- _____, 『明治期における製鹽技術』, 『日本鹽業大系』近代編, 日本専賣公社, 1982.

Industrialization of Salt Production and the Influx of Japanese Monopoly Capital in Korea during Wartime

Ryu, Chang-Ho*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in Joseon achieved monopoly of sea salt that covered 90% of domestic salt use, by enforcing the Salt Import Control Act in 1930. Also, based on that, it tried to achieve self-sufficiency in table salt and even production of industrial salt in response to chemical industries which was rising, by the fourth extension of solar salterns. It was almost impossible to get industrial salt from sea water, which required much sodium chloride more than 90%. Therefore, in late 1930s, a group of Japanese monopoly capitalists started a great enterprise in salt production in Korea, in order to fully introduce salt manufacture by machines which had been attempted before.

The colonial government approved of some private enterprises constructing solar salterns as many as 4,200 *hectare*. Dai Nippon Salt Company was the first in 1937, and Kanegafuchi Chemical Industry Company, Oriental Colonization Company, Joseon Manufacture Salt Industry Company, and Namsun Chemical Industry Company followed after it. That was equivalent to the public solar salterns of 4,325 *hectare* which was built by the Monopoly Bureau under the colonial government between 1907 and 1940. The colonial government not only approved above-mentioned private enterprises'

* Inha Museum curator

construction of solar salterns, but also provided every support including administrative one. By doing so, it ignored its own principle of prohibition of private solar salterns, and its own Salt Monopoly Act.

As a sudden rise of magnesium industry led to a huge increase of demand for bittern, the byproduct of salt production, every solar saltern started producing it, by equipped with processing facilities. Bittern, “seed of sea salt,” was indispensable raw material for increasing sea salt productivity. Therefore, since 1940s, the excessive increase of bittern export had been a major reason for decrease of sea salt productivity.

Key words : salt monopoly, salt manufacture by machines, industrial salt, bittern, magnesium industry, Dai Nippon Salt Company